



김달진 관장

국민소통팀 정주희 주임

과거와 현재를 잇는 미술 아카이브의 사관을 만나다

김달진 관장 & 국민소통팀 정주희 주임

아키비스트(Archivist)란 역사적 가치가 있는 기록물을 수집, 보관, 보존, 관리하는 사람을 뜻한다.
대한민국 최초의 아키비스트 김달진 관장을 만나 과거와 현재를 잇고,
행복을 일깨우는 물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Q. 안녕하세요. 한전KDN 국민소통팀 정주희 주임입니다.
<KDN LIFE> 독자들을 위해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미술의 역사를 기록하는 아키비스트이자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의 관장, 김달진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한국 미술의 자료를 모으고 보존하며 이를 통해 예술의 기록과 지식을 널리 알리는 활동을 해왔습니다. 이를 위한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는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은 '라키비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라키비움은 라이브러리(도서관), 아카이브(기록 보관소), 뮤지엄(박물관)을 통합한 형태의 공간으로, 다양한 자료를 수집, 보존하고, 이를 전시하고 열람할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입니다. 또한 저는 미술정보제공자로서 월간 서울아트가이드의 편집인, 미술정보 포털 달진닷컴(daljin.com)의 운영자, 그리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대중에게 미술계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Q. 한국 미술 아카이브의 사관(史官)이라 불리시는데요. 국립현대미술관의 자료담당자로, 이후 '서울아트가이드' 창간, 현재의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까지 방대한 미술 자료를 모으고 관리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처음부터 미술에 대해 잘 알거나 깊은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중학교 때부터 모나리자나 같은 서양 미술 작품을 스크랩하며 점차 미술에 흥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후 고등학교 때 서울로 와 본격적으로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경복궁에서 열린 1972년 한국 근대 미술 60년

전시를 관람한 것이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서양 미술 자료를 충분히 모았다고 생각하던 시점에, 한국 미술 자료의 가치를 인식하게 되어 한국 근대 미술 자료도 적극적으로 모아야겠다는 자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다 보니 월간 전시계사, 국립현대미술관, 가나화랑·가나아트센터를 거쳐,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Q. 미술이나 예술은 일반인들에게 여전히 조금은 어렵고 멀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다양한 미술 자료를 수집, 관리하는 일의 매력은 무엇이고, 그 중요성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처음에는 개인적인 만족을 위해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지만, 시간이 흐르며 이 자료들이 한국 미술계와 역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특히 1980년대에는 모든 자료를 바탕으로 여러 글을 쓰기도 했어요. 그중 1985년에 쓴 관람객은 속고 있다라는 글이 대표적입니다. 작가들이 실수로 잘못된 정보나 오류를 포함한 작업을 하면서도 자각하지 못해 관람객이 오해하는 문제를 다뤘는데, 이 글이 사회에 큰 경각심을 일으켰습니다. 이렇게 수집한 자료들을 다시 분석하고 글로 내보낼 때 또 다른 의미가 생긴다고 느꼈습니다. 1952년 한국전쟁 중 덕수궁 미술관에서 열렸던 벨기에 현대미술전을 알고 있나요? 전쟁 중이었기에 한국에서 해외 미술 전시가 열렸다는 사실 자체가 놀라운 일인데, 심지어 원화들이 전시되었다는 사실은 후대에 거의 잊혀져 있었죠. 이것도 신문과 자료를 뒤져가며 뒤늦게 발굴한 중요



“ 맨주먹으로 시작해 여러 도움을 받아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도 후손에게 자료를 제대로 남겨주기 위한 각종 업무와 단행본 발간 등에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

한 역사적 기록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순간들을 보존하는 것이 아카이브의 큰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기억은 한계가 있지만 기록은 영원하니까요. 그렇기에 자료를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일은 단순한 개인적 취미를 넘어, 한국 미술계와 후대에 남길 중요한 사명이라고 느끼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Q. 오랜 시간 미술 자료를 수집하고 모으면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 어려운 순간이 있었다면 언제였나요?

배낭이 없던 시절, 어깨가 빠질 정도로 많은 자료를 양손에 들고 다니면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로 인해 2011년과 2015년에는 두 차례 목 척추 중앙 수술을 받았고, 2017년에는 왼쪽, 2023년 오른쪽 어깨 회전근개 파열 수술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저는 미술 자료 수집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젊은 사람들에게 세 가지 중요한 점을 강조합니다. 첫째,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자기 만족에 그쳐서는 안 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좋아하는 일을 잘하려면 ‘미쳤다’라는 말을 들을 만큼 깊이 파고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뛰어난 사람이 되려면 한 우물을 파야 합니다. 셋째, 모든 일은 차근차근 쌓아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힘들어도 쌓아온 일이 결국 성과를 만듭니다.

Q. <KDN LIFE> 11+12월호는 ‘과거와 현재를 잇는 물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관장님에게 영향을 주거나 행복한 기억이 남긴 물건은 무엇인가요?

저에게 영향을 주거나 행복한 기억을 남긴 물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경성 관장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주신 1954년의 ‘문화인증서’입니다. 당시 문교부 장관이 예술인에게 발급한 중요한 역사적 자료로, 저에게는 이경성 관장님과의 깊은 인연을 기념하는 소중한 물건입니다. 두 번째는 국립현대미술관 경복궁 시절의 입장권입니다. 고등학생 시절, 한국 근대 미술 전시를 보러 갔을 때 구입한 입장권은 제 개인적인 역사이자 한국 미술사의 중요한 증거물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 입장권은 과거와 현재를

잇는 중요한 아카이브로서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그 당시의 기억과 경험이 어떻게 중요한 역사적 자료로 자리 잡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두 물건은 과거와 현재를 잇는 중요한 연결고리로서, 저에게 많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Q. 물건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그 가치도 달라집니다. 최근 구매하신 물건 중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최근 구매한 물건 중 가장 가치 있는 것은 1948년 8월 ‘신천지’ 잡지입니다. 이 잡지에는 고유섭 선생님의 중요한 글이 실려 있는데, 고유섭은 한국 미술 사학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 잡지는 당시의 시대적 흐름을 대변하는 것으로, 1948년 정부 수립 직후의 사회적 배경과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역사적 자료입니다. 김은호 선생님의 1941년 ‘춘추’ 10월호 표지화도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은호 선생님은 한국 미술계에서 중요한 인물이며, 그의 작품은 미술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닙니다. 이 표지화는 그 시대를 대표하는 작품으로, 경매에서 확보 후 특별 전시를 계획하고 있는 만큼 더 큰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물건은 단순히 수집의 차원을 넘어서 한국 미술과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와 역사적 가치를 반영하는 중요한 유물들입니다.

Q. 앞으로의 계획과 꿈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박물관에 희귀한 아날로그 자료가 많다 보니 국공립미술관에서 전시 때 대여 요청을 해온다거나 논문을 쓰는 연구자, 외국에서 찾아오는 연구자들의 열람 요청이 이어집니다. 자료보존 공간을 확보해야 하는 문제와 열람 서비스 공간의 부족 문제, 자료의 디지털화 해야 하는 일 등 해결해야 할 것들이 끝이 없지요. 앞으로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필요하지만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는 일이 쉽지 않아 경영자의 입장은 참 어렵기만 합니다. 지난 2월 김재희 미술 해설가가 <김달진, 한국 미술 아카이비스트>를 발간했습니다. 맨주먹으로 시작해 여러 도움을 받아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도 후손에게 자료를 제대로 남겨주기 위한 각종 업무와 단행본 발간 등에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1. 1954년 당시 문교부 장관이 예술가, 과학자에게 발급하던 이경성 관장의 문화인증
2. 김재희 <김달진, 한국 미술 아카이비스트: 새로운 가치 창조, 수집에서 공유로>
3. 1972년 경복궁 입장권과 한국 근대 미술 60년전 티켓

